"Y정신 바탕 산 사랑·이웃 사랑 계속할 겁니다"

창립 30주년 맞은 광주 YWCA 두레산악회

국내 유명산 외 수차례 해외 등반
환경보호 운동·탈핵캠페인 참여
내일 회고집 발간 기념식

"산을 사랑하는 회원 모두가 함께한 덕분에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교감하고 더욱더 화합해야죠."

광주 YWCA 두레산악회 1기 정회금(여·79) 전 총대장은 30년째 산악회 활동을 이어올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86년 광주 YWCA 내 작은 동아리에서 시작된 두레산악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30년째 모임을 유지해오고 있다. 회원들의 나이는 40대부터 70대까지로, 대부분 가정주부들이다. 30년이라는 역사에 걸맞게 활동 이력 또한 다른 산악회와 구별된다.

회원들은 30년 여정에서 국내외 명산에 족적을 남겼다. 무등산이나 월출산, 설악산, 한라산 등 국내 유명산은 물론, 수차례 해외원정도 다녀왔다. 중국 옥룡설산(5596m), 말레이시아 키나발루 로우스피크(4101m), 일본 북알프스산(3191m), 네팔 안나푸르나 고라파니 푼힐전망대(3200m), 에베레스트 트래킹(3833m) 등등.

이들의 등반은 사실상 광주 여성산악계의 역사나 다름없다.

주부들로 이뤄진 이들의 산행은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동행이었다. 이는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해 30년 역사를 이어온 바탕이 됐다.

"일주일 동안 힘든 가사일 마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요. 그러니 오죽 할말들이 많겠어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쌓인 스트레스들 여기서 다 푸는 것 같다니까요."

정 전 총대장은 "각자 집에서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챙겨오니 산중턱에서 먹는 뷔페음식이나 다름없다"며 주부들로 이뤄진 산악회의 재미난 특징을 얘기했다.

두레산악회 회원 모두는 YWCA 회원이기도 하다. 산행과정에서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광주 YWCA 두레산악회 1기 정회금 전 총회장(왼쪽 4번째)과 회원들이 30년 회고집 발간 기념식을 앞두고 진행한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를 벌이며 환경보호운동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또 3년 전부터는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YWCA에서 주관하고 있는 '탈핵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 전 총대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산악회가 운영됐다는 점이 대견하게 여겨진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각자 아름다운 산행과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YWCA 지도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YWCA 두레산악회는 16일 오후 2시 광주 YWCA 1층 대강당에서 산악회 30년사를 정리하는 회고집 '그때 우리는 산에 있었다 2' 발간을 기념하는 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 김진수기자 jeans@

트럼프 승리 기여 인코코 박화영 회장
광주 U대회와 특별한 인연 주목

한국계 미국인 담당 회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 참여한 인코코 박화영(사진 오른쪽) 회장의 광주유니버시아드와 특별한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박 회장은 뉴저지에 코스메틱 전문회사 인코코를 설립하고 네일 스티커 분야의 세계 1위를 일군 프런티어 사업가다. 그는 지난 10년 전부터 공화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주류사회에 큰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회장과 광주유니버시아드의 특별한 인연은 2014년 유엔과의 공동프로젝트로 진행된 에픽스 포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우연한 기회에 붙이는 네일을 개발하여 글로벌 사업가로 변신한 박 회장의 감동적인 사연을 접한 김윤석 사무총장이 2014 에픽스 포럼의 연사로 그를 초청한 것.

'스포츠와 문화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2014에픽스 포럼에서 박 회장은 음악학도에서 사업가로 성공하기까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인생 스토리를 한 시간 동안 소개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환경산업협회 기술발전 협약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은 14일 광주환경산업협회(회장 이정연)와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환경공단과 광주환경산업협회가 지역 환경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환경 관련 교육·연구·기술 등 정보교류와 기술제안·공동연구개발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용훈 이사장은 "앞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해 광주환경산업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환경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길가 쓰러진 40대 구해 준 멋진 장병들

31사단 김도영 상병·최민우 일병

육군 제31보병사단 비호부대 장병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쓰러진 행인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31사단 비호부대 풍암동대 상근병 김도영(22·사진 오른쪽) 상병과 최민우(27) 일병.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서방시장 4거리 인근에서 40대 A씨가 쓰러졌다. 오가던 시민들은 고꾸러진 A씨를 보고 대낮에 술을 마신 취객으로 오해해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장병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A씨를 돌려세웠다. A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 증세와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들은 곧바로 119에 구조요청을 한 뒤 신병교육대대 시절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려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추위에 떠는 남성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입고 전투복을 벗어 덮어줬다.

그리고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열어 통화목록에서 '예쁜 딸'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연락해 보호자에게 위급한 상황을 전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해 A씨가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되는 상황까지 두 장병은 현장을 지켰다.

김도영 상병은 "상황이 위급했지만 행인들은 취객으로 느꼈는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구경하거나 지나치기만 했다"며 "삭막한 사회보다는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성운 검도 8단
최고 영예 '범사' 칭호 획득

최성운(61·한국시멘트) 검도 8단이 최근 검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범사' 칭호를 획득했다.

최 범사는 최근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대한검도회 추계중앙심사'에서 '범사' 칭호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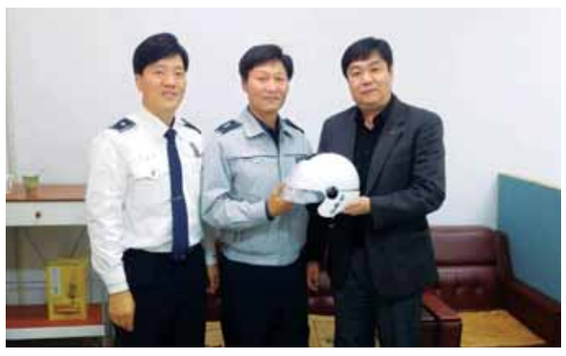
'범사'는 검도의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 칭호심의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수여하는 것이다.

최 범사는 지난 1985년 말까지 광주서석고 체육교사 겸 검도부 감독을 지냈고 제 6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1985년) 국가대표로 출전,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아들인 최철규(31)씨도 광주 북구청 실업팀 검도선수로서 활약하고 있다. / 김지을기자 dok2000@

호남통계청 봉사단 광주애육원 봉사

호남지방통계청 봉사활동 동호회 다사랑은 지난 12일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애육원'을 방문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 〈호남지방통계청 제공〉

손해보험협 호남본부 오토바이 헬멧 전달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11일 구례경찰서(서장 김낙동)를 방문해 오토바이 헬멧 50개를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도 선관위 봉사단 복지시설 후원품

전남도 선관위 직원 봉사단체 '1390 행복봉사단'은 15일 목포시 공생원과 강진군 자비원을 방문해 쌀과 라면 등 후원품을 전달했다. 〈전남도 선관위 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 일일기관사 체험행사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최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목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 기관사 체험행사를 열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양동희(전 법무부 교정국 광주교도소 근무)·김경순(전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씨 차남 요셉(목포해양경비안전서)군 정성숙씨 장녀 경화(여수종합병원 간호사)양=19일(토) 오전 11시 30분 나주시 영산로 나주교회 본당 1층, 문의 010-4276-1864.

▲임채수씨 삼남 용섭군 조삼상(전 전남도 보건과장·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문영미씨 차녀 정민양=20일(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현동742 파티오나인 5층 채플홀, 문의 010-7767-8999.

▲김동복(NH농협은행 동광주지점장)·문영숙(담양농협 상무)씨 장남 경도군 김광호·김항옥씨 장녀 규리양=26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담양 피로연=18일(금) 오후 5시 백제회관.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청년회장 이철환) 월례회=15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진주강씨 통계공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기술) 정기총회=25일(금) 오전 11시30분 종회관 4층 회의실 062-228-3368.

향우회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김보곤) 이사회 및 사무실 개소식=25일(금) 광주시 서구 매월2로53(공구 8동 204호) 문의 062-603-2795.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충만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맛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부음

▲김동휘씨 별세 대운·범진(광주평화방송 기자)씨 부친상 이루미씨 시부상=발인 15일(화) 광주시 북구 그린장례식장 제9분향소 062-250-4455.

▲홍옥건씨 별세 조준탁씨 모친상 이봉녀씨 시모상=발인 16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범택 님(남/93세)
子/子婦 : /김경순, 이승만/김영님, 승환/이춘자 근서/윤정란, 현주/조 순
女/壻 : /허재팔, 이복례/장용근
孫 : 이정휘, 정래, 동현, 동진, 동훈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화순 북면 선영 •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김동신 님(남/81세)
子/子婦 : 김 영/이리라
女/壻 : 김을리/정영진, 연희/정승래, 유진/한정구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동면양림교회묘역 •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이영숙 님(여/83세)
子/子婦 : 채선기/정복란, 원기/양애리
女/壻 : 채경자/박일경, 경희/김용선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임실호국원 •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이을래 님(여/87세)
子/子婦 : 박형진/권영숙
• 발 인 : 11월 1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000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대표이사 구제길
문 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